

한·중 FTA에 따른 기업의 기회와 시사점 - 동북 3성을 중심으로

최남석 /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nchoi@keri.org)



최근 한·중 FTA의 혜택과 중국의 동북진흥정책 성과가 중국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맞물리면서 중국 현지직접투자 및 교역확대의 유망지역으로 동북 3성이 부상하고 있다. 본고는 한·중 FTA에 따른 한·중 기업의 기회와 시사점을 동북 3성 내 수시장 선점, 나진선봉지역 개방적 경제특구 설치 및 남북경협 활성화, 남북중 3국 경제협력 촉진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중국 현지투자가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어 왔던 동북 3성 지역에서 물류인프라 확충 및 산업구조개혁이 말기단계에 도달했으므로 한국 기업은 한·중 FTA 발효와 더불어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 및 활용 업그레이드를 통해 새로운 생산과 소비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중 FTA에 역외가공지역 생산품목 310개 품목의 원산지인정이 포함됨에 따라 남북경제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제 2역외가공지역으로 나진선봉지역이 설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2004년~2014년 사이 개성공단 반출입액과 한·중 FTA에 따른 310개 원산지인정 품목의 대중교역규모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개방적 역외가공지역을 통해 남북 간 반출입이 모두 대중수출입으로 연계될 경우, 북중 접경지역 제 2역외가공지역을 통한 남북교역액은 현재 개성공단 반출입액의 대략 5배 수준인 연평균 55.8억 달러 정도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기업이 동북 3성 지역에 설립할 수 있는 한·중 합작기업의 역외가공지역을 활용한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은 동북 3성지역에서의 투자와 무역을 동시에 증가시키면서 남북경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한국 기업의 동북 3성 지역에서의 수출경쟁력을 갖춘 철강, 전자IT, 기계장비, 운송기기, 정밀광학기기 등 제조업 부문과 한·중 FTA로 투자 보호 규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금융·통신·건설·유통 등 서비스업 부문에서 현지투자확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북중 접경지역의 통합물류인프라를 이용한 자원개발·자원가공 및 에너지개발사업, 관광서비스 사업 등을 중심으로 두만강 유역 다자간 공동개발사업에 선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1. 문제제기

- 2015년 2월 25일 한·중 FTA 가서명 되면서 정식서명, 국회비준 및 발효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11월 10일 한·중 FTA 실질적 타결, 2015년 2월 가서명 후 연내 국회비준 및 발효 예상
 - 2월 가서명 이후 2015년 상반기 중 정식서명 및 연내 국회비준 및 발효 가능성 증가

- 한국-동북 3성 간 무역투자 확대의 결정요인이었던 시장확대 가능성, 물류인프라 확충,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가 중국의 본격적인 동북 3성 진흥정책 추진과 한·중 FTA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음
 - 중국의 본격적인 동북진흥정책 추진 결과 동북 3성 지역의 물류인프라 개선 성과 가시화
 - 2012년 11월 제 18차 3중 전회 이후 동북진흥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결과, 중국의 동북 3성 연변지역의 교통물류인프라 확충 및 산업구조개혁 진전
 - 한·중 FTA로 인해 동북 3성 인접국과의 경제협력 메카니즘 개선 가능성 증대
 - 한·중 합작기업의 북한 역외가공지역을 활용한 동북 3성 내수시장 개척 가능성 확대
 - 북한의 적극적인 나진선봉 지역 개혁개방추세 및 남한기업의 남북러 3국 간 석탄에너지 운송 사업 참여 실행
 - 한국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대륙철도 연결) 추진
- 본고는 한·중 FTA에 따른 중국 내수시장 개척 및 현지투자 확대의 기회를 동북 3성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의 동북진흥 경제정책과 남북경협 활성화와 관련하여 분석하고 시사점 도출
 - 한·중 FTA 발효와 중국의 동북3성 진흥정책에 따른 대외개방 확대가 맞물릴 경우 동북 3성 지역에 대한 한국 기업의 새로운 내수시장 개척 가능성 분석

2. 한·중 FTA 주요 내용 및 한·중(동북 3성) 무역투자현황

가. 한·중 FTA 주요 내용 및 의의

- 중국 내수시장 선점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중국내 우리기업 및 국민의 이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¹⁾
 - 한·중 FTA 발효 즉시 무관세 거래 품목의 교역액이 對中수출 730억달러, 對中수입 418억 달러 대비 교역액 규모 상회
 - 20년 관세철폐 대상 품목 금액은 한국 (736억불) 보다 중국 (1,417억불)이 약 2배
 - 대중 수출 관세절감액 연간 54.4억달러 추정
 - 서비스·투자 부문에서 DDA 수정양허안 수준 이상으로 서비스 부문의 양허를 확보했으며, 투자 보호규범을 규정하여 중국내 투자한 우리 투자자 보호
 - 제조업 관련 전문서비스 부문에서 양국간 상호 보완적 생산분업공정관계 진전될 전망

1) 산업통상자원부 (2015), “한·중 FTA 가서명 참고자료”, 2015년 2월.

- 통관·시험인증·지재권 등 분야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 주재원 체류기간 및 복수비자 확대, 중국 정부내 애로해소 담당기관 지정
- 비관세조치 시행 전 유예기간 확보, 비관세조치 분쟁해결 중개 절차 도입
- 통관 및 무역원활화를 통해 대중 수출입 기업들의 중국 통관 절차가 신속·간소화
 - 한·중 기업은 동북 3성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동북아 생산네트워크 안에서 글로벌 구매자와 글로벌 공급자로서 역할을 분담
 - 중간재의 효율적인 선택과 선택의 폭은 더욱 확대
- 아울러 중국과의 FTA로 중국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의 국내유입증대
 - 미국·EU 등 중국과의 FTA 체결로 글로벌 허브 국가 구축
- 농산물 보호는 강하고, 자동차 부문은 아쉽지만 서비스 부분 이익창출 가능성 확보
 - 농수축산업에 대한 국내우려가 매우 컸으나 해당부문은 거의 모두 양허에서 제외
 - 국내적 우려를 최대한 반영하여서 쌀을 비롯하여 주요 농수축산물 대부분을 양허대상에서 제외(수입액 기준 30% 양허제외)
 - 기체결 FTA중에서 농수축산물의 양허제외 수준을 가장 크게 하여 국내 농수축산업 보호
 - 한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자동차는 초민감품목에 배치되면서 양허에서 제외됨
-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 이익창출 가능성 확보
 - 건설·환경·엔터테인먼트·유통·법률 등 유망 시장 일부 개방
 - 네거티브 방식에 기반한 추가적인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 기회 확보
 - 본 협정 발효 후 2년 내 후속 협상을 개시하여, 개시 후 2년 내 마무리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생산제품 원산지 인정
 - 개성공단 생산품목 포함하여 총 310개 품목(HS코드 6단위 기준)에 원산지 지위 부여
 - 원산지판단 기준에서 현지근로자 임금을 제외하여 역외가공지역 원산지인정 가능성 확대
 - 역외가공위원회를 세워 제 2개성공단 추진 가능

나. 한국-동북 3성 무역 및 현지직접투자 현황

- 동북3성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인구 1억 명의 거대 내수시장이며 동북아 경제권에서는 북한, 러시아, 몽골, 일본과 접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교류의 중심지

- 2012년 11월 열린 중국 공산당 18기 3중 전회 이후 지속적으로 연변(沿邊)지역 대외개방을 확대 추진하였으므로 2013년 이후 동북3성의 무역과 투자 패턴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중국정부 2012년 이후 헤이룽장성, 지린성 창지투지역의 대외개방 활성화 본격적 실행
 - 동북 3성은 중국의 대외개방 최후개전지역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
 - 동북 3성을 새로운 경제성장 거점으로 개발

<표 1> 동북 3성의 무역투자 확대의 기회와 위협요인

	기회요인	제약요인
내수시장 성장잠재력	- 인구1억의 거대 내수시장 - 연평균 10% 수준의 경제성장률	- 시장경제 마인드 부족 - 국유기업체리로 사회보장 및 취업 부담
산업고도화	- 장비제조 등 제조업 재강화 - 금융서비스, 통신서비스 등 생산적 서비스업 발전 가속단계 - 신소재, 신에너지,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등 신흥전략산업 투자확대	- 중공업 비중과다로 노후설비 재투자 지연 - 혁신 R&D 능력 미약 - 서비스 아웃소싱 협력 필요
현지투자	- 풍부한 천연자원(석유, 천연가스, 석탄, 철광석) 및 기술인력 - 동북3성 지역 외국인투자우대정책 (기업소득세 감면, 토지심사 간소화, 보상비 일부 감면)	- 글로벌 가치사슬에 위치할 산업클러스터 역량 미약 - 정부조달, 자원개발사업 외국인투자 진입제한
지리경제적 가치	- 동북아 및 아태지역 거대 경제권의 물류중심지	- 동북3성 주변국과 경제협력 메카니즘 미비

주: 원동욱 외(2013),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조.

- 2012년 이후 동북 3성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중국 경제성장률에 비해서 비교적 높기 때문에 내수시장 성장 가능성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동북 3성의 경제성장률은 2012년~2013년 연평균 최소 8.0%에서 최대 12.0% 기록하며 중국 평균보다 높음
 - 이와 비교하여 중국 경제성장률은 2012년~2013년 연평균 7.7% 기록

<표 2> 중국 및 동북 3성 경제성장률

(단위: %)

지역/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중국	9.2	10.4	9.3	7.7	7.7
랴오닝성	13.1	14.2	12.2	9.5	8.7
지린성	13.6	13.8	13.8	12.0	8.3
헤이룽장성	11.4	12.7	12.3	10.0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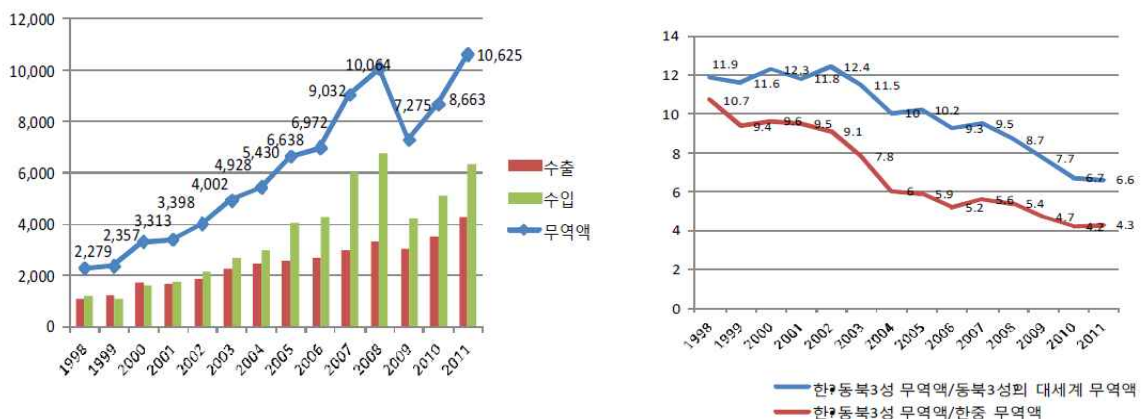
자료: 2014년 중국통계연감

- 동북 3성의 비교우위 주력수출 업종은 기계장비,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농산물가공, 첨단기술, 신에너지 등임

- 랴오닝성은 장비제조업, 지린성은 교통운송제조업 및 농산물가공업, 헤이룽장성은 녹색식품업 등에 비교우위를 갖춤²⁾
 - 제12차 5개년 계획을 통해 랴오닝성은 선진장비제조업기지 건설, 지린성은 자동차산업기지, 농산물가공기지 조성, 헤이룽장성은 녹색식품, 임산물가공 부문 선진화 도모
- [한국-동북 3성 무역 현황] 우리나라와 동북 3성 간 교역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지만 한국의 대 동북3성과의 교역 비중 및 동북3성의 무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은 감소추세

<그림 1> 한국-동북 3성 무역규모 추이 및 한국의 동북3성 대외무역 비중

(단위: 백만달러, %)



자료: 한국무역협회, KIEP 중국성별 동향 브리핑 2012년 8월 27일 참조

- 2012년 이후 한국의 대 동북 3성과 교역 비중은 랴오닝성 지역으로 약 80% 이상 집중

<표 3> 한국의 대(對)동북 3성 수출입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도	동북 3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012	4,249	6,690	3,867	5,708	310	421	72	561
2013	5,526	6,281	5,083	5,470	376	392	67	419
2014	5,465	6,703	5,042	5,784	354	484	69	435

자료: 한국무역협회

- 2012년~2014년 사이 한국의 대 동북 3성 주요 수출품목은 유기화합물, 기계류, 철강, 일반차량으로서 대중 수출에 비해 상대적 비중이 높음
 - 한국은 동북 3성에 유기화합물, 기계류, 전기전자, 플라스틱제품, 철강 등을 주로 수출하는데 전기전자, 플라스틱 제품의 수출비중은 대중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랴오닝성은 유기화합물, 지린성은 철강, 헤이룽장성은 광물성 연료가 주요 수출 품목

2) 원동욱 외(2013),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조.

- 보일러·기계류는 동북 3성 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최상위 수출 품목에 속함
- 철강, 광물성 연료, 전기전자, 기계류 등은 한국의 대 동북 3성 주요 수출입품목으로서 최근 심화되고 있는 한·동북 3성 간 제조업 산업내교역 패턴 반영

<표 4> 한국의 대(對)동북 3성 상위 10대 수출입품목(2012~2014년)

(단위: %)

수출	중국전체		동북3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1위	전기·전자(85)	40.3	유기화합물(29)	36.2	유기화합물(29)	39.2	철강(72)	27.0	보일러·기계류(84)	33.5
2위	광학·의료·정밀기기(90)	13.1	보일러·기계류(84)	11.2	보일러·기계류(84)	10.7	전기·전자(85)	15.6	광물성연료·에너지(27)	17.2
3위	보일러·기계류(84)	8.8	전기·전자(85)	10.5	전기·전자(85)	10.2	플라스틱·제품(39)	15.5	동·제품(74)	7.4
4위	유기화합물(29)	8.1	플라스틱·제품(39)	6.2	플라스틱·제품(39)	5.6	보일러·기계류(84)	14.2	전기·전자(85)	7.1
5위	플라스틱·제품(39)	6.8	철강(72)	5.6	일반차량(87)	5.0	광학·의료·정밀기기(90)	4.4	일반차량(87)	5.9
6위	광물성연료·에너지(27)	5.9	일반차량(87)	4.9	광물성연료·에너지(27)	4.2	화학공업생산물(38)	3.3	지와 판지(48)	4.4
7위	일반차량(87)	2.9	광물성연료·에너지(27)	4.1	철강(72)	4.1	유기화합물(29)	2.4	플라스틱·제품(39)	3.6
8위	귀석·반귀석·귀금속(71)	2.3	광학·의료·정밀기기(90)	3.3	광학·의료·정밀기기(90)	3.3	일반차량(87)	2.2	고무·제품(40)	3.1
9위	철강(72)	2.3	동·제품(74)	1.7	철강제품(73)	1.5	철강제품(73)	1.4	화학공업생산물(38)	3.0
10위	동·제품(74)	1.3	철강제품(73)	1.5	인조필라멘트섬유(54)	1.5	지와 판지(48)	1.1	광학·의료·정밀기기(90)	2.4
수입	중국전체		동북3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1위	전기·전자(85)	36.1	철강(72)	18.6	철강(72)	20.3	전기·전자(85)	15.0	곡물(10)	30.4
2위	광학·의료·정밀기기(90)	9.5	非편물제 의류(62)	12.0	非편물제 의류(62)	13.6	채유용종자·인삼(12)	11.6	채유용종자·인삼(12)	12.8
3위	보일러·기계류(84)	7.9	광물성연료·에너지(27)	9.5	광물성연료·에너지(27)	11.0	어패류(03)	10.1	철강(72)	10.9
4위	유기화합물(29)	4.5	전기·전자(85)	8.0	전기·전자(85)	8.1	채소(07)	8.1	무기화합물(28)	5.9
5위	플라스틱·제품(39)	3.1	보일러·기계류(84)	5.9	보일러·기계류(84)	6.6	조제사료(23)	7.0	편물제 의류(61)	5.0
6위	광물성연료·에너지(27)	2.6	선박(89)	5.7	어패류(03)	4.7	철강(72)	4.9	채소(07)	4.8
7위	일반차량(87)	2.3	어패류(03)	4.8	편물제 의류(61)	3.4	곡물(10)	4.4	플라스틱·제품(39)	4.2
8위	귀석·반귀석·귀금속(71)	2.2	편물제 의류(61)	3.5	철강제품(73)	2.5	편물제 의류(61)	4.3	조제사료(23)	3.5
9위	철강(72)	2.0	곡물(10)	2.7	도자·제품(69)	2.4	非편물제 의류(62)	3.7	목재·목탄(44)	2.9
10위	동·제품(74)	1.9	채유용종자·인삼(12)	2.2	신발류(64)	2.2	목재·목탄(44)	2.8	보일러·기계류(84)	1.9

주: 1) 각 품목별 누적액 기준임.

2) 비중은 해당 지역의 총수입, 수출액에서 해당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임. HS2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한국-동북 3성 직접투자 현황] 한국의 동북 3성 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최근 2012년 이후 랴오닝성에 대한 현지투자 감소로 동북 3성 직접투자 급감
 - (현지직접투자) 한국의 동북 3성 투자는 2000년 이후 2011년 까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
 - 중국 동부연해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과 대체관계를 갖게 되면서 2000년대 중반 이후 하락세
 - 2008년 이후 동북 3성 지역 한국기업 현지투자가 확대되는 추세
 - 동북 3성 중에서 특히 랴오닝성에 대부분의 직접투자가 집중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체된 상태
 - 2012년~2014년 사이 동북 3성의 현지투자액이 크게 감소함
 - 동북 3성 현지직접 투자의 감소는 랴오닝성에 대한 현지투자액 감소에 따름
 - 중국전체에 대한 직접투자 유입액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랴오닝성 역시 현지투자가 급감
 - 지린성 직접투자는 비중은 작지만 2012년 이후 1992~2011년 평균에 비해 증가

<표 5> 한국의 동북 3성 해외투자 추이

(단위: 백만달러, %)

연도	중국전체	동북 3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투자액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1992~2011	36,730	4,563	12.4	3,436	9.4	803	2.2	324	0.9
2012	4037	171	4.2	121	3	50	1.2	0	0
2013	5006	246	4.9	143	2.9	97	1.9	6	0.1
2014	3025	134	4.4	44	1.5	89	2.9	1	0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DB로부터 정리. 2012년 이후는 현지법인투자기준

- (제조업, 서비스업종별 투자) 동북 3성에 대한 현지투자는 2012년~2014년 제조업 비중이 평균 약 80% 수준으로 증가
 - 1992~2011년 사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의 동북 3성지역 현지 투자 비중은 각각 54.8%, 37.7%
 - 2012~2014년 사이 제조업 비중이 약 80% 수준으로 증가 추세
 - 2012년 이후 중국 전체의 제조업 투자 비중과 유사한 수준으로 동북 3성 지역 증가

<표 6> 한국의 대(對)동북 3성 업종별 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중국전체				동북 3성			
	제조업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992~2011	28,274	77.0	7,202	21.0	2,498	54.8	1,720	37.7
2012	2,743	67.9	1,278	31.7	127	74.3	42	24.6
2013	4,462	89.1	525	10.5	222	90.2	15	6.1
2014	2,580	85.3	443	14.6	107	79.9	28	20.9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DB로부터 정리. 현지법인투자기준.

- 한국의 동북 3성 제조업 부문 현지투자는 주로 기계장비, 전기전자, 기타운송장비, 자동차트레일러, 식음료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
 - 1992~2011년 사이 제조업 부문에서 대 동북 3성 투자는 주로 기계장비, 전기전자, 자동차, 식음료 가공부문에 집중됨
 - 기계장비, 전자통신, 자동차 부문 현지투자는 대부분 랴오닝성에 이뤄짐
 - 헤이룽장성을 비롯하여 지린성에서는 주로 식음료 제조업에 집중됨

<표 7> 한국의 동북 3성 제조업 업종별 현지직접투자 업종 (1992~2011년)

(단위: %)

순위	중국 전체		동북 3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업종	비중	업종	비중	업종	비중	업종	비중	업종	비중
1	전자·통신·음향 기기 제조업	28.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3.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4	식료품 제조업	19.2	전자·통신·음향 기기 제조업	37.0
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1.8	전자·통신·음향 기기 제조업	1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3.2	의복·모피제품 제조업	16.6	식료품 제조업	16.1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6.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0.4	전자·통신·음향 기기 제조업	12.2	음료 제조업	11.0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6.7
4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6.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8.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9.7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7.6	종이제품 제조업	6.7
5	1차 금속 제조업	5.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9.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7.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6.2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5.6	의복·모피제품 제조업	8.0	1차 금속 제조업	8.7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6.6	전기장비 제조업	4.7
7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4.5	1차 금속 제조업	7.1	의복·모피제품 제조업	7.1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5.5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4.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4.4	식료품 제조업	5.8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4.3	전자·통신·음향 기기 제조업	4.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7
9	의복·모피제품 제조업	3.9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4.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8	의복·모피제품 제조업	2.6
1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9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3.5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3.0	전기장비 제조업	3.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6

자료: 수출입은행, 업종 중분류 기준. 1992~2011년 누적 직접투자액. KIEP 중국성별 동향 브리핑 2012년 8월 27일 참조

- (서비스부문) 1992-2011년 사이 동북 3성 지역 서비스업 부문은 금융업, 전문서비스업, 부동산업, 통신업 부문에서 투자비중이 크게 확대됨
 - 금융업 현지투자가 지린성과 랴오닝성에 집중됨
 - 헤이룽장성에서는 통신업 부문 현지 투자 비중이 부동산업 다음으로 상위를 차지함

<표 8> 한국의 동북 3성 비제조업 현지투자 업종(1992년~2011년)

(단위: %)

순위	중국 전체		동북 3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업종	비중	업종	비중	업종	비중	업종	비중	업종	비중
1	금융업	21.2	금융업	25.3	전문서비스업	26.2	금융업	66.8	부동산업	51.8
2	소매업(자동차 제외)	13.8	전문서비스업	18.5	금융업	14.2	소매업(자동차 제외)	5.0	통신업	23.9
3	도매 및 상품중개업	8.2	부동산업	12.1	종합 건설업	13.1	부동산업	4.3	종합 건설업	4.5
4	종합 건설업	8.1	종합 건설업	10.2	부동산업	11.0	도매 및 상품중개업	3.5	농업	3.9
5	전문서비스업	7.3	숙박업	5.4	숙박업	6.7	임대업(부동산 제외)	3.2	음식점 및 주점업	3.5
6	부동산업	7.1	전문직별 공사업	3.9	전문직별 공사업	5.4	숙박업	3.0	소매업(자동차 제외)	2.1
7	숙박업	3.9	도매 및 상품중개업	3.6	도매 및 상품중개업	3.8	종합 건설업	2.8	도매 및 상품중개업	2.0
8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3.7	소매업(자동차 제외)	3.2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2.8	음식점 및 주점업	2.0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1.9
9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2.8	통신업	3.0	소매업(자동차 제외)	2.7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1.9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5
10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2.2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2.1	통신업	2.1	농업	1.0	창작·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0

주: 업종 중분류기준, 1992~2011년 누적 투자액. 수출입은행, KIEP 중국성별 동향 브리핑 2012년 8월 27일 참조

3. 한·중 FTA에 따른 동북 3성 연변(沿边)지역 다자간 경제협력 가능성

- 중국은 2011년 이후 연변지역 개방과 동북지역 산업구조개혁을 통해 동북 3성 진흥사업을 추진한 결과 최근 동북아 대외개방 수준이 확대됨
- 중국의 동북3성 지역 개발사업은 중국 정부의 12차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2011년~2015년 사이 추진³⁾
 - 산업구조 고도화, 개혁개방 활성화, 경제성장 등을 목표로 추진

3) 임민경 (2011), “주요 성별 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평가(2)-동북 3성”, 중국 성별 동향 브리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조

- 노후산업단지 개선을 통해 공업고도화 도모
 - 첨단장비 제조업, 신에너지, 신소재, 바이오, 신에너지,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등 7대 신흥 전략산업육성을 가속화
 - 랴오닝성은 동부 연해지역 경제수준 도달, 지린성은 창춘-지린 도시통합 및 러시아·북한과의 경제협력 심화, 헤이룽장성은 국유기업 개혁에 중점을 두고 추진
- 2012년 11월 중국 18기 3중 전회 이후 연변지역의 주요 항구와 변경도시 및 경제협력구에서 특구정책 본격적으로 실시
- 중국은 창춘-지린-두만강 개발개방선도구 사업을 통해 북중 접경지역을 포함한 두만강 지역 개발 추진
- 2009년 이후 국가전략으로 비준하고 본격투자 실행
 - 두만강 지역을 중국 동북지역의 중점개발지역으로 물류인프라등을 발전시켜 동북아 국제 비즈니스기지 건설
 - 창춘-지린과 옌지-룽징-투먼의 일체화를 추진하고 국경지역 개방 확대
 - 특히 2012년 이후 훈춘지역에 국제협력시범구 건설 추진

<그림 2> 중국 지린성 두만강 유역 개발 현황: 창지투 선도개발지역과 훈춘국제협력시범구



자료: 아주경제, <창지투의 거점 지린성>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부상하는 지린성, 2012.6.18

- 동북 3성 진흥정책에도 불구하고 대외개방을 위한 인프라 미비, 비효율적 산업구조조정 지연, 정부지원 정책 비연속성 및 동북3성 주변지역 및 국가 간 경제협력 메카니즘 문제로 한국의 무역투자는 제한적⁴⁾

4) KIEP 북경사무소 “동북 3성 대외개방의 현황과 제약요소”, 2014년 8월 2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조.

- 그러나 한·중 FTA 발효는 동북 3성의 대외개방 확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확대에 따른 산업구조 개혁, 동북아 다자간 협력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됨
 - 제 2개성공단 내 생산품목에 대해서 특혜관세 혜택 부여
 - 개성공단 생산중인 품목을 포함하여 총 310개 품목에 대해 혜택
 - 원산지 인정기준이 비원산지재료 가치가 수출가격 40% 이하, 원산지재료 가치가 총재료가치의 60%이상 동시충족을 요건으로 함
 - 현지 북한 근로자의 임금이 비원산지재료에서 제외되는 한편 중국산 재료는 원산지재료로 포함되므로 한국 업체의 원산지 요건 충족이 용이해짐
 - 역외가공지역을 북·중 접경지역에 설치할 경우 무관세로 가공하고 동북 3성에서 완제품을 생산해 중국 전역 내수시장에 판매할 수 있음
 - 개방적 특구를 역외가공지역으로 조성하여 북한의 수출산업 개발과 남한 기업을 연계함
 - 무관세, 저렴한 인건비, 반출입 위주 단순위탁가공 수준 향상
 - 글로벌 가치사슬의 효율적 활용 및 업그레이드를 통해 고부가가치창출 함으로써 한중 합작기업과 북한 기업의 연계성을 높임
 - 특혜관세 혜택을 기반으로 동북 3성 현지 진출 기업의 동북 3성 신흥 전략산업 단지와 연계하여 최종재를 현지 생산하고 중국 전역 내수시장에 대한 판매교두보로 활용가능
 - 현재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교역액은 2004~2014년 연평균 10.3억 달러 수준, 이에 반해 한·중 FTA에 따른 310개 역외가공지역 원산지인정 품목의 대중교역액은 동일 기간 동안 연평균 476억 달러
 - 310개 원산지인정품목 대중 무역액과 개성공단 반출입액 차액은 연평균 466억 달러 수준
 - 개방형 역외가공지역을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원산지 인정품목의 대중교역 증가액 중에서 개성공단 반출입 품목을 제외한 교역액의 성장률(연평균 15.9%) 수준으로 역외가공지역 생산품목의 대외교역이 증가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음

<표 9> 연도별 개성공단 반출입 및 310개 원산지인정 품목 대중교역 현황(2004~2014년)

(단위: 천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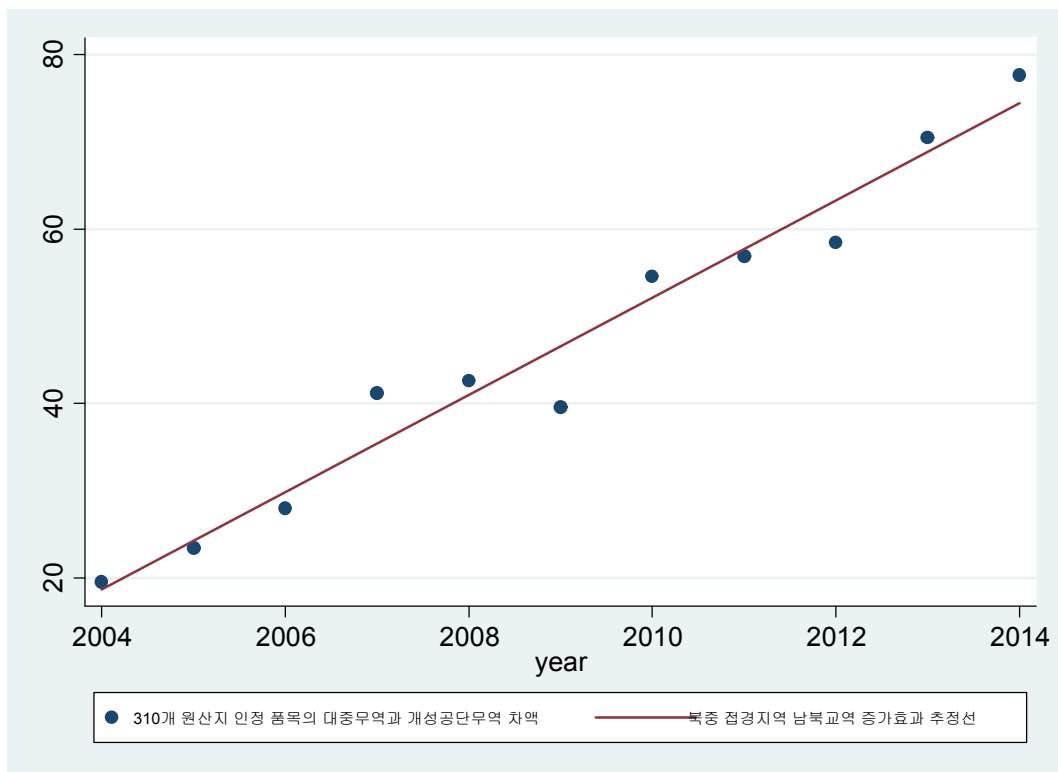
연도	310개 품목 대중수출	개성공단 반입	310개 품목 대중수입	개성공단 반출	310개 품목 무역액	개성공단 교역액	대중교역-개 성공단 교역차액	교역차액 성장률
2004	12,468,074	52	7,082,371	41,634	19,550,444	41,686	19,508,758	
2005	14,132,080	19,794	9,493,592	156,943	23,625,672	176,736	23,448,936	20.2%
2006	16,771,096	75,943	11,539,853	222,853	28,310,948	298,795	28,012,153	19.5%
2007	23,326,798	101,179	18,277,966	339,498	41,604,764	440,677	41,164,087	47.0%
2008	23,110,260	290,103	20,274,800	518,342	43,385,060	808,445	42,576,615	3.4%
2009	23,319,820	417,935	17,187,572	522,617	40,507,392	940,552	39,566,840	-7.1%
2010	34,107,832	705,268	21,915,384	737,588	56,023,216	1,442,856	54,580,360	37.9%
2011	33,480,400	908,935	25,116,380	788,698	58,596,780	1,697,632	56,899,148	4.2%
2012	35,845,968	1,073,109	24,544,490	888,086	60,390,456	1,961,195	58,429,261	2.7%
2013	44,955,912	614,649	26,648,000	517,524	71,603,912	1,132,174	70,471,738	20.6%
2014	49,170,472	1,205,771	30,815,976	1,132,038	79,986,448	2,337,809	77,648,639	10.2%
연평균	28,244,428	492,067	19,354,217	533,256	47,598,645	1,025,323	46,573,321	15.9%
누계	310,688,712	5,412,738	212,896,384	5,865,821	523,585,092	11,278,557	512,306,535	

- 패쇄형 역외가공지역인 개성공단과는 달리 개방형 역외가공지역을 북중 접경지역에 설립할 경우 한중 FTA에 따른 최혜국 대우 및 일반특혜관세 적용 가능
 - 아울러,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교역비용부담 감소에 따른 대중 교역 증가
 - 역외가공지역 반입(반출)이 곧 동북3성 지역 현지진출 한국기업을 통해 전량 대중 수출(수입)로 전환 가능하므로 310개 품목의 현재 대중수출무역과 남북교역 차액의 규모만큼 남북 교역 증가
 - 이를 통합하여 북중접경지역 남북경협액 증가규모 추정
- 북중 접경지역의 제 2역외가공지역을 통한 남북교역액은 현재 개성공단 반출입액의 대략 5배 수준인 연평균 55.8억 달러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2004년~2014년 사이 개성공단 반출입액과 한·중 FTA에 따른 310개 원산지인정 품목의 대중교역 간 교역규모 차이자료를 이용하여 추정

- 개방적 역외가공지역을 통해 남북간 반출입이 모두 대중수출로 연계될 경우, 북중 접경지역 제 2역외가공지역을 통한 남북교역액은 최대 연평균 55.8억 달러 추가적으로 증가 추정
- 개성공단 교역과 310개 원산지 지위 인정품목의 대중교역 간 교역규모 차액이 증가하는 수준만큼 북중 접경지역 역외가공지역을 통한 남북교역 증가 예상

<그림 3> 한·중 FTA에 따른 북중 접경지역의 역외가공지역 남북교역 증가효과 추정

(단위 미화 십억달러)



주: 1) 개성공단 반출입 품목인 HS 6단위 274개 품목을 포함해서 한·중 FTA에서 역외가공지역 원산지 지위가 부여된 HS 6단위 310개 품목을 기준으로 분석. 북·중 접경지역 남북경협증가액은 310개 품목의 대중교역액과 개성공단 역외가공지역교역 차액을 연도에 대해서 단순 회귀분석하여 추정함

2) 계량분석결과, 북중접경지역 남북경협증가액 = $-11158 + 5.577416^{***}(\text{연도})$, 관측치=11, $R^2=96.3$ 이며 상수항과 연도의 표준 오차는 각각 734.5, 0.365임. *** $p < 0.01$

- 우리나라의 동북 3성 주력 수출업종인 철강, 기계, 섬유,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부문에 특혜관세 혜택으로 가격 경쟁력 제고
 - 지린성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은 냉연강판, 스테인레스 열연강판 및 범용제품인 후판 등 개방
 - 지린성 주력 수출품목인 섬유분야에서 편직물 및 유망품목(기능성 의류, 유아복 등) 개방
 - 동북 3성 최대 수출 품목인 기계 분야는 포장기계, 환경오염저감 장비 등을 개방

- 랴오닝성 주요 수출 품목인 전자전기 분야는 일부 중소형 생활가전(전기밥솥, 세탁기, 냉장고 등) 및 의료기기, 가전 부품 등 개방

<표 10> 한국의 대 동북 3성 수출업종과 한·중 FTA 특혜관세 품목

동북 3성	한국의 동북 3성 주요 수출업종	한중 FTA에 따른 중국 측 개방 품목
랴오닝성	기계, 전자전기	- 일부 중소형 생활가전(전기밥솥, 세탁기, 냉장고 등) 및 의료기기, 가전 부품 등 개방 - 포장기계, 환경오염저감 장비 등
지린성	철강, 섬유	- 냉연강판, 스테인레스 열연강판 및 범용제품인 후판 - 편직물 및 유망품목(기능성 의류, 유아복 등)
헤이룽장성	석유화학	-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이온교환수지, 고흡수성수지, 폴리우레탄 등) - 중국 내 공급 부족 기초원료(에틸렌, 프로필렌 등)

주: 산업통상자원부 (2015), “한·중 FTA 가서명 참고자료”, 2015년 2월. 참조하여 저자 작성

- 최근 중국 정부의 적극적 투자로 인해 크게 개선된 교통물류 인프라로 인해 동북지역의 도시화, 산업화, 경제성장에 따른 현지소비 수요 선점
 - 한국의 자동차, 기계장비, 농수산 가공업, 에너지 및 물류산업의 현지진출 성공 가능성 확대
- 중국의 일대일로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과 한반도 교통물류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통해 북·중 간 물류망을 효과적으로 구축
 - 중국은 동북 3성 개발에 필요한 지하자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북한의 무연탄 철광석 등 광물자원 개발에 참여
 - 최근 중국의 대북 전략 변화에 따라 현지 개발참여 보다는 지하자원 수입에 의존
 - 남·북·중 3국 물류 인프라 협력체계가 구축가능하게 되면서 향후 동북아 국가 간 경제협력 및 지역 발전에 긍정적 영향 미칠 수 있음
 - 중국은 동북 진흥을 통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나진항 항만 이용
 - 창지투 선도구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북중 간 해양국제 운송로 프로젝트가 나진선봉 지역을 중심으로 실행되면 동북아 해상과 대륙을 연결하는 국제물류비즈니스 시너지 효과
- 한중 FTA로 인해 한·중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상의 분업구조가 한단계 격상될 것이므로 동북 3성 지역의 노후된 산업단지의 자원재배치 및 새로운 신흥전략 산업의 개발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음
 - 위탁가공무역 업그레이드 및 금융, 유통, 물류 서비스 가치사슬 선진화, 비교우위 산업단지 육성

- 자원가공, 녹색식품, 기계전자, 경공업, 섬유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연관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
- 수출입반입반출지역에서 동북3성 및 한일러 경제협력의 중심지로 성장

4. 한·중 기업의 기회와 동북 3성 무역투자에 대한 시사점

- **[한·중 FTA 평가]** 한·중 FTA는 상품과 서비스, 투자, 규범, 분쟁해결, 지재권 등을 포함하므로 중국의 기 체결 FTA 대비 포괄적이고 자유도가 비교적 높다고 평가됨
 - 특히 중국 현지진출 한국 기업 및 국민의 경제활동을 위해 비관세장벽 해소, 역외가공지역 원산지인정 측면에서 동북 3성 현지진출 한국 기업의 무역투자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한·중 FTA의 역외가공지역 및 중국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제도적 절차 마련은 동북 3성 내수시장 선점 및 두만강 지역 남북경협 활성화에 영향 미칠 수 있음
- **[글로벌 가치사슬 업그레이드, 동북 3성 내수시장 선점]** 중국 현지투자가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어 왔던 동북 3성 지역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및 활용 업그레이드를 통해 생산과 소비시장을 개척해야 함
- 제조업 분야를 근간으로 하여 양국 기업의 상호보완적 글로벌 생산분업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킬 필요⁵⁾
 - 중국은 한·중 FTA에서 한국이 가공무역으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 양허제외를 원칙으로 함
 - 한국기업의 대중 수출 중간재 509개 품목 관세를 현행대로 유지
 - 기존의 단순위탁가공무역과는 다른 방법으로 한·중 FTA를 활용해야 함
 - 한·중 기업 간 글로벌 가치사슬을 적극 활용 및 업그레이드하여 양국의 부가가치수출을 확대하고 중국 최종재 시장을 개척해야 함
 - 단순가공무역을 전환하여 중국현지 내수 최종재 소비시장 개척
- 특히 동북 3성은 낮은 인건비, 지리적 근접성, 인구 1억 명의 내수시장, 언어 및 문화적 유사성 등으로 한국기업의 현지투자 확대가 전망됨
 - 우리나라 대중 주력수출산업(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선박, LCD, 핸드폰, TV등)을 기반으로 동북 3성 지역에 신시장 개척 및 최종재 상품을 개발해야 함
 -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비교우위개발이 수월하며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가스터빈, 트랙터, 항공기 부품품, 의료기기, 엑스선 기기 등 개발⁶⁾

5) 최남석, “한·중 FTA 시대, 글로벌 가치사슬 업그레이드를 통해 무역협력 도모해야”, KERI 칼럼, 2015년 1월 21일, 한국경제연구원. 참조.

- 동북 3성에 철강, 기계류, 운송장비, 금융서비스, 통신서비스, 신사업분야 의료기기, 정밀광학기기 등 현지생산 판매 확대
- **[역외가공지역 설치와 남북경협 활성화]** 동북 3성지역에 설립할 수 있는 한·중 합작기업의 역외가공지역을 활용한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은 투자와 무역을 동시에 증가시키면서 남북경협 활성화에 기여
 - 북중 접경지역에 역외가공지역 설치하면 무관세로 가공하고 동북3성 지역에서 완제품을 생산해서 중국 현지전역에 수출하는 동북 3성 접경지역 비즈니스 모형개발
 - 북중 접경지역 원자재 물자 조달 및 근로자 공급이 수월
 - 국내나 중국 보다 인건비 저렴
 - 반출입 시간 단축(역외가공지역에서 완제품 생산지역까지 거리 근접)
 - 중국 접경지역 안에 위치한 한국 다국적 기업이므로 중국 현지 고용, 투자, 생산에도 기여
- 나진선봉 지역 역외가공지역 설치는 한국, 중국, 북한 3국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므로 추진될 가능성이 큼
 - 북한은 나진선봉 지역을 중심으로한 남북경협을 통해 남북한 연계성에 중점을 둬으로써 북한이 우려하는 경제예속을 회피할 수 있음⁶⁾
 - 개성공단은 원자재·물자 반출 및 생산물 반입이 남북한 사이에서만 패쇄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북한의 남북한 경제력 격차를 감소시키는 데는 기여하지 못함
 - 나진선봉 지역에 설치될 수 있는 남북한 개방적 경제특구는 북한의 원자재 조달하고 생산제품의 제 3국으로의 직접 수출을 통해 북한 내 수출산업을 육성
 - 이와 같은 남북 경협은 북한의 수출 산업개발과 남한 기업의 연계를 추진
 - 북한 경제개발구 외국인투자 투자유치가 증가하면 북한 나진지역의 개혁개방에도 긍정적인 영향
 - 북중 접경지역에 역외가공지역을 설치할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북중 경협과 남북 경협을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므로 남북경협에 기여하게 됨
 - 북한이 전통적 우호관계를 맺어온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여 남북경협 추진할 수 있으므로 다자간 경협으로 확대 발전
 - 남북 및 중국 동북 3성이 상호협조하고 공유할 수 있는 나진선봉 역외가공지역 설치 및 개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남북중 3국의 공동이익 창출

6) 최남석(2014) “10대 주요 수출상품의 경쟁력 분석: 경제적 복잡성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7) 최수영(2015),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방향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참조

- 중국기업의 공동 참여는 개성공단 사례와 같이 남북경협 경색국면에서 북한의 일방적 특구 운영중단에 대한 불확실성 최소화
- **[남·북·중 3국 경제협력과 동북아 지역협력 촉진]** 동북 3성 개발과 연계하여 북·중 접경 지역 교통물류 통합인프라 개발 사업 및 동북아 다자간 지역협력에 한국의 참여 가능
 - 동북 3성에서 중국 정부는 동북 변경지역을 통한 국제 대통로를 건설하고 해륙복합 국제운송 통로개발 추진⁸⁾
 - 일대일로 (육상해상 실크로드) 건설의 일부로 훈춘-나진-선봉 연계 개발 추진
 - 동북부 지역 경제발전 도모 및 북한을 통한 국제무역 통로 확보
 - 한국과 중국 정부는 중국이 동북 3성 접경지역의 동서 양측에서 개발하고 있는 교통물류통합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자간 공동 무역특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두만강 지역에 한·중 FTA 산업단지 조성하고 남북중, 남북러 3국 글로벌 자유무역 특구 개발
 - 남북중, 남북러 다자간 경제협력 활성화는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음
 - 한국기업은 중국의 동북 3성 개발과 연계된 북중 접경지역 개발 관련 건설서비스, 물류서비스, 관광서비스, 자원개발 및 가공 제조업 등에 참여 가능

8) 이주호 외, 『중국 동북부물류시장 진출전략 수립: 중국-북한과의 국제협력의 활용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4년 참조.